

## 이혼 - 그 마지막 선택

유 회 현 · 유회현 산부인과 원장

**자** 자그마한 키에 가냘픈 몸매, 어딘지 수줍은 듯한 맑은 인상이 40대의 나이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선생님, 저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신체적인 결함을 보완하려고 해요. 전 남편과 이혼했는데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관계였던 것 같아요. 애정이 없는 부부관계가 가장 문제였어요.”라며 미소를 띄우는 모습에서 이혼의 상처나 상실의 슬픔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녀의 전 남편은 의사라고 했다. 그들 부부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으로 아들 하나에 딸 하나를 두고 아주 넉넉하고 호화롭게 살았다. 단지 문제가 있었다면 남편이 너무 고지식하고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탓인지 생활의 규범이 엄했다는 것이다.

언제나 부부가 정중하게 존대를 했고 각방을 썼으며 합방하는 날도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따뜻한 부부애란 애당초 없었으며 모든 것이 너무나 규범에 꼭 맞추어진 것들뿐이어서 생활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외출도 남편의 허락 하에 했고 남편과 동반하지 않는 외출은 있을 수 없었다.

이 여성은 성악을 전공했으며 유복한 집안에서 여러 자매들과 자유롭게 자랐다. 그런데 시집을 와서는 모든 행동에 규제가 있고 규범대로

살아야 했으니, 그녀로서는 견딜 수 없이 힘든 생활이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정신없이 살았지만 그녀는 점점 이런 생활에 염증을 느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여고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다. 고교시절 친했던 그 친구는 남편의 엄격함 때문에 전화도 제대로 못 하다가 모처럼 해 본 것이었다.

“너 아직도 그렇게 살아? 요즘 누가 너처럼 사니, 이 바보야! 밖에 나와서 바람도 좀 쐬고 그래. 애, 나와라. 나랑 근사하게 식사 한 번 하자. 응?”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기분은 날이갈 듯이 기뻐다. 온갖 근심과 규율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모처럼 살아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 뒤로 그녀는 친구에게 만나 줄 것을 간청했고 남편 몰래 하는 위험한 나들이가 시작되었다.

운명의 여신의 장난일까. 친구의 사촌오빠가 집에 놀러오면서 그들은 첫눈에 서로에게 반하고 말았다. 그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외모도 준수했지만 무척 개방적이고 분위기 있는 남자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빠져들기 시작했고 각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조차 잊은 채 사랑에 몰두하게 됐다.

그녀는 딱딱하고 답답한 새장에서 탈출하는 기분이었고 자유로운

세상에 흠뻑 젖어들었다. 그는 너무나도 다정했으며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그를 만나면 세상의 걱정은 썰물처럼 사라져갔고 귀가시간도 잊은 채 그와 함께하고 싶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전혀 하지 않던 외출이 잦아지자 이상히 여겨 두 달에 걸쳐 그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기록했다. 그것도 모른 채 그녀는 그와 2~3일에 한 번 만나던 것을 남편이 소홀한 틈을 타 매일 만나다시피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따스함과 다정함을 느꼈으며 그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느꼈다. 그는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사람이어서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을 즐기는 타입이었다. 그와 근사한 곳에서 하는 식사, 석양을 보며 달리는 드라이브... 그와의 데이트는 천국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상관 없었다.

이렇게 자유롭고 뜨거운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고 그들은 누구도 신경쓰지 않은 채 사랑을 불태웠다. 하지만 그들의 꿈만 같고 달콤한 밀애는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은 뒷조사 끝에 얻은 증거물을 남자의 집으로 보냈다. 남자의 집은 별집을 꾸서 놓은 듯 난리가 났고 그의 아내가 약까지 먹고 자살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그 남자의 온 집안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3대 독자였던 그의 집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그녀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 또한 부정할 일을 저지른 아내는 원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승낙했다. 일사천리로 이혼을 끝냈고 그녀는 그 길로 집을 나와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를 기다렸다. 그의 휴대폰도, 회사 전화도 모

두 불통이었지만 그에 대한 믿음으로 그녀는 기다렸다. 하지만 그에게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그의 집 근처에서 서성거리기도 하고 같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에 기대어 울어도 보았지만 현실은 그녀를 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어렵게 그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줄 것을 간청했다.

그렇게 반년이 넘게 흐른 후 비가 쏟아지던 여름 밤 그들은 마주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비에 젖은 그들의 몸처럼 싸늘히 식어 있었다. 마주 바라보는 눈길에서는 아무 것도 느낄 수 없었고 그들의 눈빛은 이미 식어 있었다.

그녀는 이내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는 다시 아내의 품으로 돌아가 있었고 현실의 두려움으로 인해 겁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쓴 웃음이 나왔다.

‘저런 남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니...’

입가에 자그마한 경련이 일었다.

그녀는 차갑게 눈인사를 하고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난 것이었다. 파국이었다. 로맨틱한 사랑, 환희의 나날들... 그리고 모두 태워버릴 것 같던 사랑은 이미 사라졌다.

그녀는 그녀의 천국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허망한 것이었나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사랑의 덧없음이 그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유치한 유행가 가락에 한동안 울겠지...’ 그녀는 딱 1개월 동안만 울기로 결심했다. ‘나오는 눈물은 막지 않으리라. 하지만 그 이후 다시는 울지 않겠어.’

가을이 되어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온 것이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77

